

CONTENTS

- 04 인사말 제18대 전남농업기술원장 박홍재
- 06 농정보기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농정정책

SECTION 1.

꿈&농업

- 08 기획특집
- 소비 패턴에 맞는 쌀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할 때 이진량 디지털농업 기자
 - 쌀로 만든 가공 아이템으로 훨훨 날다 전남농업기술원
 - 앞선 생각, 앞선 기술로 쌀 가공식품을 선도하다 경기도농업기술원
- 18 팜테크
- 2020년 공익직불제 새롭게 시작!
- 20 글로벌농업
- 일본의 생산조정제 변화에 따른 쌀농사 현황
- 쌀 직불제 시행과 폐지 이후
- 24 농식품 트렌드
- 쌀·곡류 가공식품 트렌드

SECTION 2.

미래&농업인

- 28 전남명인
- 담양 창평쌀엿 유영군 명인
- 30 팜&마케팅
- 행복한농부민지맘 채미숙 대표
- 34 청년정책
- 전남지역 청년농부 지원 정책
- 36 청년이 온다
- 지리산피아골식품 김미선 대표
- 40 남도 여기!
- 전남 화순

SECTION 3.

농업&전남농기원

- 46 귀농 정보
- 전남 시군별 귀농창업지원 정책
- 48 농기술 정보
-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요령
- 50 교육프로그램
- 3월 교육프로그램 안내
- 52 JARES NEWS
- 58 남도축제

미래로 가는 전남농업

발행처 전남농업기술원
발행일 2020년 1월
발행인 전남농업기술원장 박홍재
편집인 기술지원국장 김봉환
편집책임 자원경영과장 서종분
편집기획 김덕현 신성범 이수영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전화 061-330-2597
팩스 061-335-4199
홈페이지 www.jares.go.kr
발간등록번호 78-646000-000450-07
진행·제작 명진씨앤피(02-2164-3000)



쌀은 이제 주식을 넘어 기호식품으로 더 다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좋은 땅에서 더 좋은 쌀을 생산하여, 맛있는 상품을 만들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맛있는 남도 쌀을 이용한 상품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 현장행정, 공감행정



현장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새로운 시각과 창의성으로
행정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18대 전남농업기술원장 박홍재

Q. 취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전남 농업인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8대 원장으로 임명받은 박홍재입니다.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농업규모가 가장 큰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Q. 우리 농가가 세계로 나아가는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A.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해 연구와 지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가 하나가 되어 소비자가 선호하는 새로운 소득작목, 우수 품종을 지속 개발·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전 농산물 생산기술 개발과 현장실용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우리 도는 친환경농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도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기농산물 안정재배기술 개발, 농업미생물 활용 축산 환경개선, 미세먼지 저감기술을 개발하여 현장에 보급하겠습니다.

Q. 초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농업기술원의 대안은 무엇인가요?

A. 미래 전남 농업의 주역이 될 청년 후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농은 증가하는 반면 청년농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형 영농정착 기술지원을 통하여 차세대 소득 창출형 청년농업인을 키워내도록 하겠습니다.

Q.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전남농업기술원의 중점 추진 전략에 대해 알려주세요.

A. 4차 산업혁명 대응 스마트농업 기술 개발·확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첨단 농기계를 활용한 고효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첨단 농업기술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과 재배기술을 지속 개발·보급하는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신소득 유망국립 아열대작물 실증센터」를 전라남도에 유치하고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Q.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객인 전남농업인을 비롯한 전남도민과의 진정한 소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가 아닌 둘, 셋이 모아진 힘의 위력을 믿습니다. 연구와 지도, 그리고 행정지원 등이 힘을 모은다면 해내지 못할 일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발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대망의 경자년이 밝았습니다.

흰쥐의 기운을 받아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농정정책

정부는 올해 농업정책의 목표를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슴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 사는 농업·농촌'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농정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고돼 있다.
새로이 바뀌는 주요 제도와 시책을 농업인/정책/복지/창업 분야에 맞춰 소개한다.

자료 전남도청

농업인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전남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체 등록 농어민에게 1월부터 연 6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공익직불제 시행

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된다. 우선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된다.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개편,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공익직불제는 4월 이후 시행된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기준 변경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방식이 신청우선주의에서 실행률 우선주의로 바뀌고 지원 연령도 현행 65세 이하에서 70세 이하로 상향된다.



정책



농업정책보험 강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팔·살구·시금치·보리·호두 5개가 추가돼 모두 67개 품목이 된다. 또한 영세농(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의 국고 지원비율이 기존 50%에서 70%로 늘어난다. 일반 농가는 종전처럼 50%를 지원받는다.

친환경 농가 사업지 부담 완화

소비수요를 창출하는 과수·채소 등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를 위해 전문단지 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 농가 부담을 기존 40%에서 30%로 낮추었다.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농어촌민박의 소방 및 안전시설 설치와 사업자의 안전교육이 강화된다.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표지(등), 완강기, 일산화탄소경보기,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며,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필수교육 중 소방·안전 교육이 2시간으로 강화된다.

복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임신부+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연간 48만 원 상당)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27개 시·군·구에서,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부터 적용된다.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의 대상자가 기존 소규모(3~20인)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까지 확대되며,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기간도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품목 확대

GMO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5개 품목(간장, 된장, 두부, 식용유, 옥수수콘)을 Non-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식재료로 확대 공급한다. 2,369개교를 대상으로 1월부터 시행된다.



창업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2020년 1학기부터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장학금(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대상이 기존 농대에서 모든 대학(일부제외)으로 확대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함께 학업장려금 200만 원,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된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

최대 3억 원, 금리 2%, 3년 거치 7년 상환인 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 지원 조건 가운데 거치·상환 조건이 1월부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바뀐다.



SECTION

01



꿈&농업

새해, 새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졌습니다.
삶과 생의 근원을 이루는 농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바쁜 움직임 속에서
농업의 꿈을 일구어냅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전남 농업의 미래를 위해
생명의 근원, 삶의 기반이 되는 ‘쌀’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 10

기획특집

- 소비 패턴에 맞는 쌀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할 때 _ 이진량 디지털농업 기자
 - 쌀로 만든 가공 아이템으로 훨훨 날다 _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 앞선 생각, 앞선 기술로 쌀 가공식품을 선도하다 _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농식품개발팀
- 18

팜테크

2020년 공익직불제 새롭게 시작!
- 20

글로벌농업

일본의 생산조정제 변화에 따른 쌀농사 현황 _ 쌀 직불제 시행과 폐지 이후
- 24

농식품 트렌드

쌀·곡류 가공식품 트렌드

소비 패턴에 맞는 쌀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할 때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30년 전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최근 20~30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편의점 삼각김밥과 도시락 컵밥 등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 소비가 늘면서 제조업 쌀 소비량은 급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양곡 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2018년 1인당 양곡(쌀 + 기타 양곡) 소비량은 69.5kg으로 전년대비 2% 감소했다. 30여 년 전 1988년 기준 소비량 133.4kg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최근 쌀 소비추세에 따른 쌀 가공 동향에 대해 살펴본다.

글 이진랑 디지털농업 기자

가정 소비 줄고 제조업 쌀 소비량 증가세

가구 내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1970년 373.3kg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해 2018년에는 167.3kg(전년대비 1.2% 감소)으로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2018년 식료품과 음료 등 제조업 부문 쌀 소비량은 75만 5,664톤으로 전년대비 6.8% 증가했다.

업종별로 쌀 소비량을 보면, 도시락과 식사용 조리식품이 14만 747톤으로 1년 전보다 29%가 증가했으며, 감소 업종은 주정 제조업으로 전년대비 13.1% 감소했다. 특히 즉석밥은 2018년에 4억 개가 넘게 팔리고 매출액으로는 전년대비 30% 성장한 4,100억 원을 달성했다. 역대 최대 수치이다. 편의점 도시락도 쌀 소비에 한몫하고 있다. 판매 규모가 2013년 779 억 원에서 2018년 3,500억 원으로 5년새 4.5배 급성장했다.

이처럼 쉽고 간단하게 먹는 쪽으로 쌀 소비 트렌드가 변하고 있어 쌀 가공품 소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밥용 쌀 소비량은 줄지만 가공용 쌀 수요는 느는 추세에 맞춰 신중한 품종선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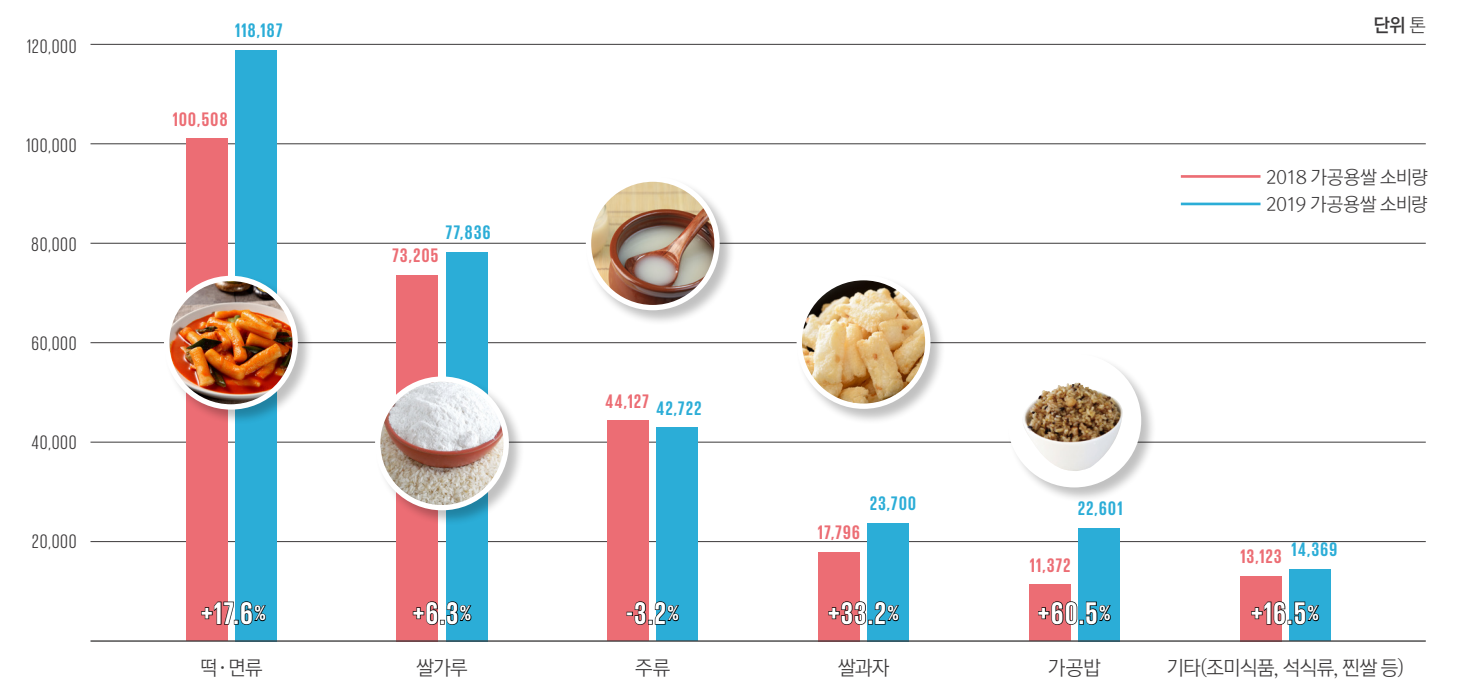
쌀 소비 동향 고려한 생산과 유통전략 세워야

쌀 유통전문가 사이에서 그동안 양곡 정책이 다수확과 생산비 절감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쌀 산업이 성장 동력을 잃은 시장으로 전락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생산에서 소비로 과감히 쌀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쌀 생산 계획을 세워야 하는 농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쌀 산지유통 관계자는 그동안 한 농가가 한 개의 쌀 품종만 재배해왔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가령 가정용 고급 품종과 식당·가공용의 저렴한 품종을 같이 재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유통시장에서도 새로운 쌀 소비 트렌드에 대응한 상품개발과 마케팅이 필요하다. 증가하고 있는 20~30대 1인가구 수요에 맞춰 소포장과 장기보관이 가능한 상품이 늘고 있는 추세다.

소비가 기호에 맞게 쌀도 변신하고 있다. 혼합쌀·혼합잡곡으로 맛을 다양화한 블렌딩 쌀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제 쌀 소비는 점차 건강 기능성과 기호성이 향상된 맞춤형 쌀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편의식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쌀 소비 촉진과 새로운 틈새시장 개척을 위해 산지에서도 마케팅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2019 정부양곡 가공용 쌀 소비량



출처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쌀로 만든 가공 아이টে으로 훨훨 날다

최근 고령화에 따른 소비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1인 가정과 여성의 사회활동 65세 이상 인구수 증가로 가정식 대체식품 HMR(Home Meal Replacement)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쌀 소비 또한 점차 기능성 쌀, 간편식을 위한 쌀 소비 추세가 높아지면서 쌀 가공제품도 그에 발맞춰 개발되고 있다. 맛에서나 품질에서 우수한 전남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원의 쌀 가공 현황과 제품을 소개한다.

글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최근 건강기능 강화 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합쌀·혼합 잡곡으로 맛을 다양화한 블렌딩 쌀이 인기를 끌면서 전남 농업기술원에서도 블렌딩 쌀 개발과 가공화 사업을 진행했다. 기능성을 추가한 특화 절당미, 하이미 쌀을 개발하고 이를 상품화하여 유통,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절당미는 전남 무안의 특산물인 양파를 포함하여 오미자, 구기자, 민들레, 감국 등 당뇨에 좋은 17가지 생약재를 80℃ 이하의 저온에서 추출하여 감압방식을 사용하여 쌀 내부까지 혈당강화 성분이 침투할 수 있도록 만든 쌀이며, **하이미**는 양파껍질·감초·등굴레 등 체지방 감소와 비만 억제에 도움이 되는 10가지 생약재를 추출물을 동일한 방법으로 쌀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만든 쌀로 각각의 효능을 인정받아 특허출원 된 쌀이다.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는 이렇게 개발된 기능성 효능을 갖는 쌀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요즘 식품 선호 트렌드에 맞춰 혈당 강화와 체중감소에 효능이 있는 잡곡을 선발하여 냉동밥을 개발하였다.

절당미, 하이미 쌀을 이용하여 혈당강화 효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장·귀리 등 잡곡 8종을 체중조절 효능이 있는 조·강낭콩 등 잡곡 6종을 각각 선발하여 가장 식감이 좋은 최적의 잡곡 혼합비율과 각 잡곡별 수침시간을 설정하여 취반 후 급속동결한 제품이다. 냉동밥 영양성분 분석결과 식이섬유 함량이 일반 백미밥에 비해 1.5~3.7g/100g으로 높고 칼슘, 칼륨 등 무기질 함량 또한 4배 이상 높다. 절당미의 경우 항 당뇨효과는 25% 정도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도내 무안군에 소재한 가공업체에 기술지원하여 ‘절당미랑’과 ‘하이미랑’ 상표명으로 생산·판매하고 있다.



쌀맥주 체험용 키트와 제빵용·커피용 쌀크림을 개발하다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는 최근 쌀에 대한 고정 관념을 뛰어넘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상품화를 지속 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쌀파스타 등을 개발해 상품화에 성공한 바 있는 전남농업기술원은 최근 쌀맥주·쌀크림 등도 다양한 상품개발로 쌀산업 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요즘 젊은 층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수제맥주의 주원료가 되는 맥아 60%를 쌀로 대체한 쌀맥주와 글루텐 프리 제품의 일환으로 기존의 밀가루를 쌀로 대체한 쌀크림을 개발했다.

일반적으로 맥주를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로는 맥아, 효모, 홉이 있으나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크래프트 맥주 펍 순례’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소비자의 기호도가 다양해지면서 맥주의 주원료인 보리맥아에 곡류 전분이나 밀 맥아, 과일 껍질 등 다양한 부 원료를 혼합한 상품들이 늘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쌀맥주는 보리맥아를 쌀로 대체할 수 있는 최대 함량을 찾고 최대 함량에 대한 당화와 자비, 발효 기

술 개발을 통해 제조한 제품으로, 맥아 60%를 전남 쌀로 대체하여 쌀도 소비하면서 기존의 맥주 맛과 향에 차별성 을 둔 제품이다. 또한 이 기술을 이용해 소비자가 자신만의 맥주를 직접 제조할 수 있는 쌀맥주 체험용 키트 상품도 함 께 개발하였다.

쌀맥주는 보리 맥아와 쌀, 에일(Ale)용 효모, 2~3가지 홉을 이용하여 개발하였고 쌀 함량이 많아 기존의 맥주에 비해 목 넘김이 부드럽고 풍미가 깊은 것이 특징이다.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한 쌀맥주 체험용 키트 상품은 쌀맥주 핵심 기 술인 당화농축액과 홉, 효모, 발효조, 페트병으로 구성되어 키트만 이용하여 수제 쌀맥주를 제조할 수 있는 제품이다. 쌀맥주와 더불어 제과·제빵용 쌀크림도 개발하였다. 그동안 제과·제빵용 크림은 믹스 형태의 수입제품이 대부분 있 었는데, 글루텐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믹스형 제빵용 크 림 속 밀가루의 대체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크림의 용도별로 적합한 쌀가루 품종 및 제분방식을 선발하였고, 밀가루를 대체하여 제빵용 2종, 커피용 1종의 쌀크림을 개 발하였다.



제빵용 백미 쌀크림



제빵용 흑미 쌀크림



- 1. A 쌀크림, B 밀크림 맛 선호도 조사
- 2. 쌀 휘핑크림 설문조사 중
- 3. A 쌀크림 B 밀크림 선호도는 A가 더 많음



쌀맥주와 함께 개발한 제빵용과 커피용 쌀크림은 새로 창업하는 청년 창업인들에게 크림에 적합 쌀 품종 및 제분방식, 제조방법의 기술지원을 통해 소비확산에 힘을 기울였다.

쌀맥주와 쌀크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다

고함량의 쌀을 이용하여 맥주를 만들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발효 시 효모의 먹이로 이용되는 당분을 만드는 과정인 당 화가 잘 되지 않고 수율이 낮으며 특유의 씹쓸한 맛을 내 는 것이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여 ‘쌀 함량이 높은 맥주의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고 수요가 있는 업체에 기술을 이전하여 쌀맥주의 산업화를 통한 쌀 소비에 힘을 예정이다.

또한 ‘쌀맥주 체험용 키트’는 보성과 해남의 농촌 교육농장과 연계하여 수제맥주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일반 소비자들과 청년농업인, 사이버농업인 농가 대표들이 함께 참여하였고, 자신들이 직접 기른 농산물을 맥주에 접 목하여 다른 농가와 차별되는 수제 쌀맥주 체험 프로그램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았다.

쌀맥주와 함께 개발한 제빵용과 커피용 쌀크림은 새로 창업 하는 청년 창업인들에게 크림에 적합 쌀 품종 및 제분방식, 제조방법의 기술지원을 통해 소비확산에 힘을 기울였다.

수입 맥아를 대체한 쌀 60% 함유 맥주 제품은 쌀 원가 대 비 약 2.8배, 쌀맥주 체험용 키트는 약 3.7배, 쌀크림은 약 5 배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쌀맥주 체험용 키트는 가정이나 농가 체험용으로 이용이 가능해 맥주 소비층 확대에서 쌀 소비 확대로 그 파급효과가 기대 되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이윤희(061-330-2514)



앞선 생각, 앞선 기술로 쌀 가공식품을 선도하다

경기도는 일찌감치 이천 임금님쌀, 안성 안성맞춤쌀 브랜드화의 성공으로 쌀 가격을 유지하며 농가 소득에도 안정을 꾀하고 있다. 또한 양평, 김포, 평택 등지의 쌀 브랜드화와 가공용 쌀 경기미 활용,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쌀’ 산업에 사업성과 우수성과를 보이고 있는 경기도농업기술원 성과사례를 통해 브랜드화와 제품화, 유통 등의 사업을 벤치마킹 해보자.

글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농식품개발팀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지난 2009년부터 농식품가공팀을 조직 전통주, 쌀빵, 쌀음료, 식사대용식품 등 약 45종의 제품을 개발하여 16건의 특허기술을 확보하였고, 약 60개 업체에 기술이전하는 등 쌀을 포함한 경기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경기도 농업 R&D 역량을 높여왔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일찌감치 쌀 가공에 관심을 가지고 앞서서 업체들과 기술이전 등을 통해 활발하게 제품화하고 있다. 쌀 음료, 쌀 면, 쌀 발효주 등의 제조업체와 3개 특허출원 및 등록된 기술을 이전하는 등 제품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또한 쌀 소비를 위해 경기미 계약재배를 통한 쌀 공급에도 노력을 쏟고 있다. 2019년 계약재배를 통해 주류, 음료, 떡류 등 도내 쌀 가공업체 4곳에 경기미 원료곡 320톤을 공급하는 등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간편식 쌀 가공

최근에는 간편성과 편리성을 갖춘 식사대용 쌀 발효제품 ‘발효푸딩’을 개발하여 보급했다. 쌀을 엇기름이나 누룩 등으로 당화하여 한천으로 젤리 형태로 가공한 제품이다. 대

중성 높은 간식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용으로도 제격. 청소년들의 기호에 맞게 떠먹는 젤리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스트로우파우치 형태로 개발하였다. 간편 섭취 가능한 포켓형 조미밥 제조기술과 식혜 등 발효음료, 쌀 스낵 등의 쌀 가공업체와 협약을 통해 제품 개발을 가속화하였다.

쌀 맥주

농업인 소득 증대와 새로운 전통주 개발 사업으로 2014년부터 추진한 시험 연구사업의 결과물 중 하나인 2015년에 쌀 맥주 제조법을 개발, 보급했다. 맥주 제조 시 전통주 발효방법을 접목한 것이 특징. 생쌀 발효법을 접목해 잔에 맥주를 따랐을 때 맥주 거품유지 기간을 연장한 것도 장점이다. 자색고구마, 복분자 등 국산 농산물을 부원료를 첨가해 다양한 맥주를 만들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쌀 전통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술들은 한일정상회담 건배주(2009, 자색고구마막걸리), 우리술품평회 대통령상 수상

(2017, 호담산양삼막걸리), 뉴욕 몽드셀렉션 2년 연속 수상(2015 금상, 허니와인) 및 국내·외 행사의 건배주(2011 세계유기농대회, 연막걸리)로 사용되는 등 그 품질과 맛을 인정받아 왔다. 쌀 이외의 원료를 이용해 제조한 100% 벌꿀을 이용해 만든 ‘허니비와인(아이비영농조합법인)’, 수수를 이용한 증류주인 ‘문배주(문배주양조원)’ 등과 계약재배 경기미(보람찬쌀)를 이용한 ‘жат막걸리(우리술)’등에 기술을 지원하였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신제품 쌀 ‘가와지1호’와 ‘참드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다수확 쌀 ‘보람찬’으로 만든 약주 3종도 선보였다. ‘가와지1호’로 만든 약주는 알코올 12%의 ‘감사-화이트’, 부드러운 식감과 찰진 밥맛을 가진 참드림으로 만든 알코올 16%의 ‘감사-레드’, 다수확 쌀 품종이면서 밥맛이 좋은 보람찬으로 만든 알코올 14%의 ‘감사-블루(기존제품 리뉴얼)’가 그것. 이 경기미 3종 전통주 제품은 경기도 육성 쌀 신제품의 특징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제조법을 달리하여 기존 약주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농식품개발팀(031-229-5783)



경기도농업기술원 판매·홍보활동

상시 경기사이버장터(kgfarm.gg.go.kr)

경기도 우수 농특산물 전문쇼핑몰, 2020년 2월부터 새롭게 개편

- 2019. 11** 서울국제식품산업전 참가
경기도 안심먹거리 G 푸드쇼(G-Food Show) 참여
- 2019. 8** 미국 LA 식품박람회 참가
참드림, 맛드림, 가와지1호를 전시·홍보하고, 건나물 밥바, 밥알 없는 식혜, 라이스칩, 잣막걸리, 미르40 등 쌀 가공제품 수출을 위한 해외 바이어 상담 진행
- 2019. 5** 서울 강남 전통주갤러리 전시
경기도농기원 개발 6종 19개 전통주 시음과 판매 특별전 참여
- 2018. 6** 2018 우수급식 외식산업전 참가
경기미를 사용한 쌀가공품으로 구성된 초간단 건강급식메뉴 소개



2020년 공익직불제 새롭게 시작!

쉽게 알아보는 공익직불제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어떻게 개편되나?

기존의 쌀·밭농업·조건불리 직불금이 통합되어, 소농직불금이나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경관보전 및 친환경직불 등은 그대로 유지되어 선택에 따라서 직불금을 더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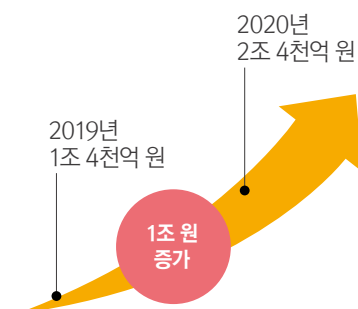
개편전	개편후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등	선택형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등
조건불리지역직불	공익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	기본형 공익직불 면적직불금(역진적단가)
밭농업직불	소농직불금(정액)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직불예산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소규모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 지급

소규모 농가의 기준은

경지면적,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



논·밭, 재배작물 구분없이

동일한 단가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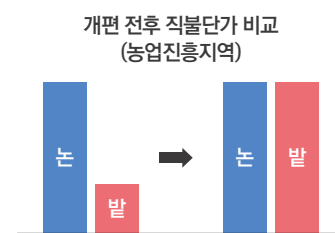
1.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밭,
 2.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3.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 3단계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 적용

과거 수령액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단가 설정



Q&A

Q1. 공익직불금 신청 및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A. 2020년 4~5월간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 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Q2. 내가 받은 직불금이 얼마나 오르나요?

이번에 통과된 법과 예산을 바탕으로 향후 농업인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급 단가 등 세부 시행방안을 결정할 것입니다.

Q3. 2018년산 및 2019년산 쌀의 목표가격은 얼마인가요?

80kg당 21만 4천 원(10kg당 2만 6,75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과거 18만 8천 원에서 2만 6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Q4. 쌀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 쌀농가는 쌀값 하락 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요?

매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하고 시장격리 및 생산조정을 결정하여 쌀값이 안정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제 농사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1. 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정보 통합관리로 실경작자 요건 검증 및 심사강화
직불금 신청정보를 농자재·농약구매이력 등 실경작 증명관련 자료와 연계하여 검증강화
2.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및 명예감시원 도입을 통해 관리감독 강화
신규취득농지, 관외경작자 소유농지 등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
3. 거짓·부정한 신청·등록 시 제재강화
(기존) 2배 추가 징수 및 5년 이내 등록제한 ⇒ (개선) 5배 이내 추가 징수 및 8년 이내 등록 제한
4. 신고포상금 인상 및 부정수급 신고센터 활성화로 위법행위 적극 신고 유도

문의사항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781
농촌진흥청 063-238-150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54-429-4000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일본의 생산조정제 변화에 따른 쌀농사 현황

쌀 직불제 시행과 폐지 이후

자료 「일본의 농업현장 방문 및 농업정책 조사(2017.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김종인 부연구위원 /
디지털농업(2019. 10) 해외농업 일본편

일본의 농업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단일 품목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공급과잉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1971년 이후 생산조정을 실시해왔다. 1978년 이후부터는 대두·밀 등으로 전작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여 쌀 공급과잉 해소와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생산조정제를 시행해왔다.

이 제도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형태로 실시되어 왔는데, 2018년 이후부터는 정부 주도의 생산조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007년,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 도입

일본 정부는 2007년에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을 도입해 기존에 쌀을 중심으로 특정품목들의 가격을 지지하던 정책에서, 농가의 주요품목 수입합계(쌀, 맥류, 대두, 사탕무, 전분용 감자)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농가의 주요품목 수입합계(주식용 쌀, 맥류, 대두, 사탕무, 전분용 감자)가 평년수입 합계(과거 5년간의 올림픽평균)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의 90%를 보전하는데, 이때 보전액의 25%는 생산자가 부담한다. 이는 기존의 ‘품목별 가격정책’ 기조를 ‘농가 경영 전반을 대상으로 한 소득정책’으로 크게 정책방향을 전환했다. 이 제도는 규모조건(개별농가 4ha 이상, 집락영농 20ha 이상)으로 인해 대상농가가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해, 농가들로부터 다수의 농가들이 정책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2010년 기준 4ha 이상의 농업경영체는 전체의 74%에 불과했고 이에 따라 2010년에는 지급대상자를 대다수 농가로 확대하고 소득보전 수준을 강화한 쌀직불제를 도입했다.

2010년,

쌀직불제(호별 소득보상) 도입

일본 정부는 2010년 대다수 농가를 대상으로 생산비를 보전하는 쌀직불제를 도입했다. 쌀직불제 대상 농가는 판매농가(경지면적 30a 이상 혹은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50만 엔 이상)로까지 확대하였다. 쌀직불제는 고정직불과 변동직불로 나뉘며, 고정직불은 생산비를 보전하는 것이고, 변동직불은 갑작스러운 가격 하락에 대비해 평년 수준의 판매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정직불은 10a당 15,000엔으로 산정(2002~2008년간의 생산비와 판매가격 차이)했고, 당해 연도의 쌀 판매가격이 과거 판매가격(2006~2008년)을 하회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했다.

2014년,

쌀직불제 단계적 폐지 및 자율적 생산조정제 이행

2014년에 쌀직불제 단계적 폐지 및 자율적 생산조정제로 이행했다. 그 이유는 쌀 직불제는 막대한 재정 소요에 따른 타산업·타작물과의 형평성 문제, 쌀 재배 고령농가의 경영 이양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쌀직불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요 증대가 기대되는 사료용 쌀·가루용 쌀 생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쌀 공급과잉 구조를 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었다. 따라서 변동직불은 2014년산부터 폐지고, 고정직불은 2014년산부터 반액으로 줄였으며, 2018년산부터는 완전 폐지하였다. 대신 사료용 쌀·쌀가루용 쌀의 직불금을 기존의 80,000엔/10a에서 최대 105,000엔/10a으로 인상했다.(단수가 높을수록 직불금 단가가 상승하는 방식을 도입했으며 직불금은 55,000~105,000엔/10a 수준) 사료용 쌀 재배면적이 2015년 전년 대비 135.4% 증가(79,766ha) 증가하면서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주식용 쌀 가격 및 수입산 사료용 옥수수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향후 성과를 예단하기 어려움에 처했다.

일본은 고정직불까지 폐지되는 2018년 이후부터는 정부 주도의 생산조정제를 개편하여 민간이 자율적으로 생산조정을 실시하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단, 정부는 2018년 이후 전국의 쌀 수급 관련 정보 및 광역단체인 현의 판매 및 재고상황, 가격정보 등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민간이 자율적으로 적정규모의 쌀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쌀직불제 폐지에 따른 쌀 농가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논 활용 직불 증액(사료용 쌀·가루용 쌀 중심)’, 새로운 공익형 직불제(농지유지직불) 도입, 경영안정대책의 대상자 확대 등의 보완 대책을 마련하였다. 농지유지직불은 농지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농로·



수로 관리 등의 일상적인 공동 활동에 대한 직불금으로 생산기반 유지가 주된 목적이다. 기존에는 경영안정대책(수입감소 영향 완화 대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 영농규모 조건(개별농가 4ha, 집락영농은 20ha)이 부과되었으나, 2015년부터 이를 해지하였으며, 신규 취농자 중에도 지자체의 인증을 받은 경우 대상으로 추가하였다.

직불제 폐지 후 쌀 대신 전작작물 생산 늘어

일본은 2018년 이후 쌀 직불금을 완전폐지했다. 대신 논활용 직접지불제를 도입했다. 논에 콩이나 보리, 사료용 쌀 등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그로 인해 주식용 쌀 재배면적이 크게 줄었다. 하지만 2018년 주식용 쌀 가격이 오르자 대체작물의 면적이 크게 줄어 농림수산성과 지자체 농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 최대 쌀 주산지인 동북지방에서 가공용 감자나 풋콩과 같은 전작작물의 생산이 늘고 있다. 보리나 콩 등 전형적인 전작 작물뿐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작물을 재배해 경영 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다. 쌀 정책이 변화한 가운데 재배 품목을 늘려 소득 안정과 경영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일본농협(JA)도 시설 정비나 기

계화 체계 확립을 지원 중이다. 계약재배와 단경기 출하로 수요자 증대에 대응하고 있다.

미야기현 히가시마츠시마시(市)의 농사조합법인 오시오북부는 3년 전부터 감자칩용 감자재배를 시작해 2019년 재배면적을 17ha로 늘렸다. 오시오북부는 사료용 쌀이나 콩·목초 등을 100ha 재배해 연간 약 1억 2,000만 엔의 매출이 있었지만 이 중 직불금의 비율이 60%나 됐다. 감자칩용 감자재배를 시작한 이유는 경영 밸런스를 얻기 위해 판매만으로 채산이 맞는 품목을 도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감자칩용 감자는 계약재배하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된 데다 수확이 여름철이라 노동력 분산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었다. 미야기현 감자생산협의회에 따르면 감자칩용 감자의 소득은 10ha 4만 2,152엔(산지 직불금 불포함)으로, 주식용 쌀이나 직불금을 포함한 콩·보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다. 2019년 미야기현 내 감자 생산면적은 62.6ha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3년 후까지 감자 재배규모를 100ha로 늘릴 계획이다.

쌀 정책 수정으로 벼농사 편중 현상을 탈피하려는 아키타현에서는 풋콩 재배면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재배면적은 1,300ha로 10년 만에 50% 증가하였으며, 전국 최고 규모로 성

장했다. 특히, JA아키타북부 관내의 2019년 풋콩 재배면적은 240ha로 10년 전의 7배에 달한다. 이 지역 JA풋콩부회의 오바타 구에츠 회장 역시 쌀 24ha(7만 2,600평)에 전작 작물인 풋콩과 콩을 각각 6ha(1만 8,100평) 재배 중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10만에서 20만 엔 가까이 매출이 기대돼 여름 수입원이 되는 한편, 노동력 분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키타현도 신품종 개발이나 마케팅을 지원하며 “원예작물의 강화로 벼농사 편중에서 탈피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사료용 쌀, 3년 이상 재배조건 직불금 지급 방안 검토

일본 농림수산성은 2019년 8월 말 쌀 대신 전작 작물을 재배할 때 지급하는 논 활용 직접 지불금 중 사료용 쌀과 쌀가루용 쌀에 대해서는 ‘복수년(復數年) 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방침을 내놨다. 2020년부터는 3년을 기본으로 하는 복수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급 요건으로 내세웠다. 전략적 전작 작물의 재배면적을 확보하고, 수요자가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하는 것이 목표다. 단 수년 동안 재배 규모가 고정되는 것을 꺼리는 농가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요구조건은 농수성이 2019년 8월 말 재무성에 제출한 2020년 농림·수산 관계 예산 요구안에 담겼다. 직불금 전체 규모는 전년도와 같은 3,215억 엔으로 설정했다. 농수성은 이 안을 제출하며 사료용 쌀과 쌀가루용 쌀 재배 직불금에 대해 현행과 같은 ‘수량에 따라 지급(수량에 따라 10ha(300평)당 5만 5,000~10만 5,000엔 지급)’하되 직불금을 농가가 받을 경우 공급처와 3년을 기본으로 한 복수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 같은 방침의 배경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에 있다. 일본 농수성이 추진하는 전작 품목 중 ‘주력 상품’으로 볼 수 있는 사료용 쌀은 2017년까지 4년 연속으로 재배면적이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쌀 가격이 오른 2018년산은 감소로 전환되었고, 재배면적 역시 8만ha로 전년보다 줄어들었다. 농수성은 사료용 쌀의 생산 규모가 계속 변동하는 것을 문제삼으며, 복수년 계약을 직불금 지급요건으로 추가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생산 규모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해 생산 현장에서 법인조직 등은 일정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쌀 가격 등 직불금 단가를 비교하면서 해마다 재배를 결정하는 농가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따라서 복수년 계약이 전제가 된다면 사료용 쌀의 재배를 꺼리는 농가도 나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쌀·곡류 가공식품 트렌드

식습관의 변화와 1인 가구의 증가
1인당 쌀 소비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쌀 가공산업과 판로확대를 모색해야
한다. HMR, 할랄식품, 가치소비 등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국내외 쌀·곡류
가공식품 트렌드를 알아보자.

자료 한국쌀가공협회 외

FOOD

건강 지향하며 급격히 성장하는 세계 HMR시장

HMR(가정간편식) 시장은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유로모니터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 세계 HMR 시장 규모는 1,251억 달러지만 2023년에는 1,39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미국, 영국, 일본 등이 HMR 선진국이라 평가받는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유기농, 비건, 클린 이팅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영양가 있는 간편한 한 끼를 지향, 건강 지향의 냉장 간편식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한 PB제품이 HMR 시장을 이끌고 있어 브랜드 저마다의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 제품을 만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시니어 인구를 위한 건강 간편식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 중으로, 70대 이상의 노인을 위한 저염식, 균형 잡힌 영양 도시락을 개발해 판매,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종교에서 트렌드로, 할랄식품

할랄시장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무슬림 인구의 증가와 인식의 변화 때문이다. 미국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무슬림 인구는 2015년 기준 18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24.1%를 차지하고, 글로벌 식품시장에서 할랄식품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15.9%에서 21.2%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건강식을 선호하는 트렌드와 함께 할랄은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친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이라는 인식이 늘고 있다. 할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까다로운 할랄 인증을 받는 것이지만 전체 무슬림 국가에 통용되는 공통의 인증은 없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 중 87%가 무슬림인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로 자체 할랄인증제도인 ‘무이(MUI)’를 통해 할랄 식품시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말레이시아 또한 이슬람 국가로 전국에 20여 개가 넘는 ‘할랄파크’를 추진하는 등 할랄

을 문화상품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체 할랄인증제도 ‘자킴(JAKIM)’은 무이와 함께 할랄인증의 양대산맥이라고 불린다.

국내 쌀 소비량 줄지만 가공용은 증가하는 추세

식습관의 변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쌀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가공용 쌀 소비량은 증가 추세에 있다. 2000년대 이후 전체 가공용 쌀 소비량은 연평균 8.6% 증가해 2017년에는 71만 톤으로 늘었다. 반면 HMR과 떡, 음료 제조 등 다양한 쌀 가공식품이 생산되면서 쌀 가공식품산업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 편의점 도시락이나 간편식 등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식생활 변화가 반영된 셈이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조금씩 감소하는 반면 가공용 쌀 소비량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것은 쌀 가공식품이 쌀 소비촉진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쌀 가공식품에도 가치소비의 바람이 불다

지속가능한 생산방식과 제품을 소비하는 ‘가치소비’가 글로벌 식품 트렌드로 부상하며 쌀가공식품 역시 이에 발맞춰 원재료인 쌀의 품종에 가치를 더하고 프리미엄 가공식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

TREND

다. 쌀 가공식품을 대표하는 주류에서는 이미 다양한 전문 양조장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한국술을 선보이고 있고, 아이를 위한 쌀가공 이유식과 간식 역시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 프리미엄 제품군이 다양해지고 있다.

슈퍼푸드의 파워를 보여주는 슈퍼시드의 인기

최근 몇 년간 아마씨, 치아씨드 등과 같은 씨앗이 점점 더 대중화되고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귀리’는 슈퍼푸드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표 식품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거친 식감으로 인해 소비량이 극히 적고 유통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했지만, 최근 국내 소비 및 생산량이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렌틸콩도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3대 슈퍼시드라 불리는 햄프씨드, 치아씨드, 아마씨드는 단순한 건강식품을 넘어 각종 의약품 원료 가능성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을 만큼 효능을 인정받고 있다. 더불어 2020년에는 슈퍼시드 분야에서 수박씨가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박씨는 영양가가 높고 단백질, 마그네슘, 철분, 칼륨 염산이 풍부한 반면 칼로리가 낮아 아주 유혹적인 간식이다.



SECTION

02



미래&농업인

‘사람이 곧 희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업에 대한 꿈을 꾸고, 미래를 가꾸는 사람이 곧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부진 각오로 한걸음씩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전남의 농업인들이
곧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 아닐까요?

- 28 **전남명인**
담양 창평쌀엿 유영군 명인
- 30 **팜&마케팅**
행복한농부민지맘 채미숙 대표
- 34 **청년정책**
전남지역 청년농부 지원 정책
- 36 **청년이 온다**
지리산피아골식품 김미선 대표
- 40 **남도 여기!**
전남 화순

궁중비법을 담은 전통 쌀엿 만드는

담양 창평쌀엿 명인

담양에는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의 가장 대표적 주전부리를 전통 그대로의 방식으로 만들고 있는 명인이 있다. 그 주인공은 대한민국 식품명인 21호 호정식품(주) 유영군 대표. 3대째 대를 이어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을 만들고 있는 유영군 명인의 창평쌀엿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한희진 사진 호정식품(주)

대한민국 식품명인 21호
유영군 명인

좋은 쌀로 귀한 쌀엿을 만든다

예부터 전라도 담양 창평은 쌀엿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창평쌀엿은 조선초, 세종의 만형 양녕대군이 창평에 머무를 때 수행 궁녀들에 의해 민간에 전해진 것이 시초로, 그 제조법이 창평 문화유씨(文化柳氏) 집안에 정착하여 현재까지 명맥이 이어져 왔다.

유영군 명인은 할머니 허희수(1887~1849), 어머니 박기순(1919~1983)씨를 통해 집안 대대로 전해내려온 제조비법을 전수받아, 1990년 호정식품을 설립했다. 창평쌀엿은 먹을 때 바삭바삭하여 입안에 잘 붙지 않고, 먹고 나서도 찌꺼기가 남지 않으며 특유의 독특한 단맛으로 유명하다. 온 정성을 다해야만 얻어지는 귀한 엿으로, 많이 만들 수도 없고, 싸게 팔지도 않지만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온다.

오로지 쌀과 엿기름(겉보리 싹)으로만 만들어, 주재료인 쌀이 중요하다. 창평쌀엿은 계약재배를 통해 매입한 담양쌀을 포함해 국내산 쌀만을 사용한다. 고두밥을 짓고 직접 기른 엿기름(맥아)을 섞어 식혜를 삶히고(당화), 그 식혜물로 조청을 달이고, 이를 갠엿으로 고아내기(농축)와 잡아 늘여 흰엿을 만들기까지 꼬박 사흘 동안 불앞을 떠날 수 없다. 미세한 온도조절, 계절과 날씨, 엿을 짓는 속도와 시간 등 수많은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만 좋은 엿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를 두고 유영군 명인은 “이 쌀엿이 한마디로 여시(여우의 전라도 사투리)요 여시!”라고 말한다. 쌀엿을 만드는 과정은 조상의 뛰어난 지혜와 숨결이 고스란히 집적되어 있는 우리의 고유한 전통음식문화인 것이다.

유영군 명인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쌀엿이라고 믿는다. 창평쌀엿이 유명세를 얻게 되자 그 제조기술을 전파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 그 결과 현재 담양 창평마을은 쌀엿마을이 되었으며, 농가소득이 증대되어 부자마을이 되었다. 엿물 달이는 단내가 가까호호 퍼질 때 큰 보람을 느낀다는 유영군 명인은 창평쌀엿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요,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전통문화”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창평쌀엿은 1994년 미국 LA수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캐나다 등 각지로 수출되고 있으며, 단순한 전통식품을 넘어서 우리 민족의 고유문화자산으로써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일임하고 있다.

창평쌀엿

업체명	농업회사법인 호정식품(주)	대표자명	유영군
주소	전남 담양군 금성면 원율길 12	TEL	061-383-6446
온라인 판매처	www.hojeongfood.com		
오프라인 판매처	국내백화점(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및 대형마트(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와 우편사업단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유영군 명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영군 명인의 성공 노하우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라

1990년, 단순 소비재가 시장에서 날개 돋친 듯 팔리던 시절이었지만 유영군 명인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을 잇기 위해 창평쌀엿 제조공장을 차렸다.

전통기술을 현대화하라

구전으로 전수받은 전통기술을 매뉴얼화해 대량생산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전통의 비법을 담을 수 있는 제조설비가 필요했고, 유영군 명인은 오랜 공을 들인 끝에 완벽한 설비를 갖출 수 있었다.

고객에게 감동을 전하는 사업을 하라

고객에게 의미를 남길 수 있는 귀한 것을 만들어 감동을 전하면, 돈은 자연히 따라오는 법이라고 유영군 명인은 전한다.





아무리 좋은 작물을 재배해도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땅끝마을 해남에서 농사를 짓는
채미숙 부부는 SNS라는 세상을 만난 뒤,
좋은 작물을 제대로 선보이고 고객과
소통하는 즐거움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글 백미희 동영상 홍승진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관련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이용방법

- ① 스마트폰에서 QR코드 앱 설치
- ② 앱 실행 후 사각형 테두리 안에 QR코드가 보이도록 위치
- ③ 인식된 결과 화면 이동

땅끝마을 해남에서 건강과 행복을 전하다

행복한농부민지맘
채미숙 대표

교육으로 마케팅에 눈을 뜨다

땅끝마을 해남에서 유기농 오색쌀과 무농약 작두콩, 와송 등의 건강한 먹거리를 재배하고 구운누룽지, 부드러운 곡물라떼 등의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행복한농부민지맘’. 채미숙 대표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라다. 낮 시간에는 직접 농사를 짓고 밤이 되면 노트북을 켜고 SNS를 통해 고객과 소통한다.

‘민지맘’ 부부는 평범하게 농사를 지어 작물을 판매하는 농부였다. 계약 재배로 2,000평 규모로 배추농사를 짓고도 판로가 없어서 원물값도 못 받고 빛이 쌓인 적도 있고, 공판장에 갔던 작물이 판매되지 않아서 가져가라는 전화를 받은 적도 있었다. 땅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번에 뭘 심어야 하나’ 항상 고민이었다.

하지만 해남군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난 뒤 농사와 상품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변하게 된다. SNS를 통해 고객과 활발하게 소통하다 보니 여러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농사를 짓게 되었다. 이제는 땅이 부족해서 고민이 될 지경이라고 한다.

“해남군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SNS반과 SNS마케팅 반을 신청했어요. SNS가 중요하다는데 저는 컴퓨터를 제대로 켜고 끌 줄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계정을 어떻게 만들어서 운영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배울 수 있었어요. ‘상품화’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죠.”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오색쌀과 작두콩에 예쁜 스티커를 붙이고 상자에 정갈하게 담아내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SNS로 소통하며, 건강한 제품을 전하다

‘행복한농부민지맘’의 사업자를 낸 것은 2017년도였지만 민지맘 부부는 원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다. 원래 농약을 잘 쓰지 않고 건강하게 작물을 키웠지만 상품을 예쁘게 꾸며서 SNS를 통해 세상에 선보이고 나니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진 것이었다.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한 채미숙 대표는 지난해, 전남농업기술원을 찾아 SNS 심화 마케팅에 대한 교육도 이수했다. SNS는 단순히 상품을 선보이는 쇼케이스 역할이 아니다. 채미숙 대표는 고객과 SNS로 소통하며 많은 것을 주고받는다. “저희 곡물라떼는 쌀로 만들어요. 밥을 못 먹고 다니는 가족이나 투병중인 부모님을 위해 곡물라떼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존의 귀리를 이용한 미숫가루는 마실 때 까끌한 느낌이 있거든요. 부드러운 목 넘김을 위해 쌀을 주원료로 사

용하게 된 거죠. 이렇게 요청사항을 받아서 제품을 만들다 보니 점점 취급 품목이 늘어나고 있어요.” 채미숙 대표는 민지맘이 사랑받는 이유를 ‘건강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트렌드’로 손꼽았다. 하나를 먹어도 몸에 좋은 것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들어 쌀 관련 가공품의 인기가 높아진 것을 느낀다고 한다. 민지맘의 인기상품인 구운누룽지도 그 인기를 반영한 제품이다. 현미와 귀리, 홍미, 홍화씨가 들어간 구운누룽지는 과자처럼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제품으로 아이간식과 건강을 생각하는 젊은층이 선호하는 제품이라고 한다. 이제는 정성껏 키워낸 작물이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고, 많은 이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전할 수 있어서, 그들은 오늘도 행복한 농부다.

ZOOM IN

믿고 먹을 수 있다

민지맘의 제품은 대부분 무농약이나 유기농 제품이다. ‘행복한농부민지맘농장’의 홈페이지에 가면 부부가 농사짓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다. 내가 먹을 식품이 어떻게 자랐는지 볼 수 있으니 더욱 안심이다.

고객 맞춤형 제품

채미숙 대표는 SNS를 통해 고객들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농부다. 투병중이거나 건강을 위해 민지맘의 제품을 찾는 고객들이 많아서 ‘곡물라떼’, ‘와송’ 등 고객의 요청을 반영해 작물을 키우거나 제품을 출시한다.

깔끔한 패키징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법이다. 민지맘의 제품은 대부분 친환경, 유기농 제품으로 건강에 좋은 것은 물론이고, 모든 제품이 깔끔하고 예쁘게 패키징되어 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행복한농부민지맘을 보실 수 있습니다.

CEO	채미숙	설립연월	2016.04
TEL	061-535-0467	E-MAIL	co0467@naver.com
홈페이지	행복한농부민지맘 co0467.blog.me 행복한농부민지맘 농장 alswl0467.modoo.at		
판매처	스마트스토어 smartstore.naver.com/alswl0467 해남미소 www.hnmiso.com/start_index.asp		



선배농부의 TIP

Tip 1. ‘교육’은 농부를 눈 뜨게 한다

영세농민들은 트렌드를 알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해남군농업기술센터에서 ‘SNS’와 ‘SNS마케팅’ 교육을 이수하면서 ‘행복한농부민지맘’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고, 이후 전남농업기술원에서 마케팅 심화과정 수업을 들으면서 다양한 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Tip 2. ‘상품화’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라

예전에도 친환경농사를 지었지만 그때는 잡곡을 선물하면 그냥 ‘고맙다’며 드셨어요. 그런데 예쁘게 패키지에 넣었더니 ‘주변에 선물하게 구입하겠다’며 연락이 오더군요. 취급하는 작물이 저렴하더라도 ‘상품화’를 통해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Tip 3. 유관기관의 교육과 설비 등을 최대한 활용하라

민지맘 부부는 해남군농업기술센터의 가공공장 설비를 활용해 새싹귀리와 새싹보리 상품을 기획하고 있어요. 알아보면 유관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 기관의 교육과 설비 등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2020년 청년농부를 위한 정책 돌아보기

올해도 전남도는 '청년이 일하고 머무는 행복전남'을 정책목표로 하여 일자리 활성화, 복지 향상 등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중 청년 창업농부 및 후계 영농인, 귀농 준비 청년 등 청년농부에게 도움이 될 정책을 소개한다.

출처 전남도청



청년 창업·영농승계인 지원

청년 창업농장 조성

미래 농업을 선도할 청년 창업 영농인력이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창업 전 인큐베이팅 농장 조성 지원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사업

맞춤형 농업창업 지원을 통한 돈 버는 차세대 소득창출형 농촌청년 사업가 성공모델 양성을 위해 도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 20명에게 청년 창업농 아이디어 및 아이템 발굴, 공모 사업화 진행

영농승계 청년동 창업지원 시범사업

영농승계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조기정착 및 농업경영 연속성 확보를 위해 가업승계 농업인으로 실제 영농종사 1년 이상인 청년 10명에게 전문교육 및 강소농 민간전문가 1:1 컨설팅 연계 추진

우수 농업인 발굴과 육성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농업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 경영인을 발굴하기 위해 만 18세 이상~50세 미만의 영농경력 10년 이내인 자, 농업계열 학교 졸업자 및 농업교육 이수자 277명에게 총 831억 원 융자(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학사농업인 육성

도내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50세 이하 농업인(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 또는 전남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자이거나 비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하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총 64명에게 1인당 2억 원 이내로 영농기반조성을 위한 융자금 지원

대학생 농산업 체험캠프 운영

대학 재학 중인 학생들의 농업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영농창업의 관심과 의욕을 키우기 위해 순천대, 목포대, 전남대, 전남도립대 160명 대상으로 우수농가 현장체험 캠프 운영

귀농 지원과 복지 향상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 추진

예술가, 프리랜서, 창업·귀농어·귀촌 희망자 등이 전남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며 창작·창업, 귀농어·귀촌 등 지역에서 성공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거주공간 제공, 지역체험·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내인 자) 412명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1년차 월 100만 원, 2년차 월 90만 원, 3년차 월 80만 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 제공하기 위해 도내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만 75세 미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 복지 활동을 위한 행복바우처 카드 지급

전남 구례군 토지면에 위치해 지리산으로 둘러싸인 피아골은 예로부터 단풍 절경지로 유명했다. 이 단풍명소가 이제는 계절과 상관없이 ‘피아골 미션씨’를 찾기 위해 연간 100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명소가 되었다. 지리산의 정기를 담아 된장을 만드는 김미선 대표는 상생경영으로 피아골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이다.

글 백미희 사진 홍승진

고향과 상생하는 청년 창업농

지리산 피아골에서 태어나 대학을 다닐 때 말고는 평생을 피아골에서 보낸 김미선 대표는 ‘피아골 미션씨’라는 브랜드를 매개로 고향 피아골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김 대표의 이력은 독특하다.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피아골로 돌아와 청년 창업농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도 그렇고 한때는 20대 여성 이장을 역임하며 이름을 날렸다.

얼마 전에는 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삶의 질 향상, 고로쇠를 주원료로 하는 전통장류 개발로 미국 수출, 농촌 어르신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2019년 제1회 전라남도 으뜸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되고, 2019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하는 등 수상경력도 화려하다.

피아골에서 태어난 김 대표는 중학생 때부터 지리산 등산객에게 직접 만든 된장을 팔던 손맛 좋고 행동력 있는 아이였다. 고향 피아골을 사랑한 김 대표는 대학을 마치고 ‘내가 잘하는 일’,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고민한 끝에 2011년 지리산피아골식품을 창립하고 본격적으로 발효사업에 뛰어들었다. 그의 나이 겨우 26살 때의 일이다.

“IMF 이후 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자 어른들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마을의 평화가 깨어지는 걸 지켜보며 자랐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피아골에 전국 최고의 발효식품 테마공원을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 피아골이 부자마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상생하는 청년대표 ‘피아골 미션씨’

지리산피아골식품
김미선 대표



이런 마음이 통했는지 27살 때는 동네 어르신들의 추대로 전국 최연소 여성 이장이 됐다. ‘3선 이상’으로 6년 동안 마을의 온갖 굵은일을 맡았고, 인근 농가들의 소득을 높이는 일에 힘을 쏟았다. 현재 김 대표는 ‘피아골 미션씨’라는 브랜드로 고로쇠 수액을 첨가한 된장과 고추장, 간장, 냄새 없는 청국장 등 총 15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단순히 장류 생산과 판매에 그치지 않고 지역 어르신 고용과 장류 생산에 투입되는 원료를 지역 농가로부터 구매하는 등 지역과 상생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피아골 미션씨’를 관광 콘텐츠화해 고향으로 방문객을 유입하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상생경영의 일환이다.



피아골에서 맛보고, 놀고, 배운다!

지리산 해발 600m에 위치한 피아골에는 공장과 연구소가 있는 지리산피아골식품 건물 이외에도 천왕봉 산장 등 민박 4동과 식당 2동이 자리하고 있다. 공장 2층의 판매장에서는 피아골 미션씨 제품과 마을 농산물을 만나볼 수 있고, 식당과 숙소 옆에는 계곡물이 흘러 여름철이 되면 예약이 밀릴 정도다. 방문객들을 대상으로는 된장 학교, 김장 체험, 숲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지리산피아골식품을 방문하는 것만으로 볼거리와 먹을거리, 숙박, 체험, 교육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리산피아골식품은 6차 산업의 모범사례로 손꼽힌다. 6차 산업이란 1, 2, 3차 산업을 복합해 농가에 높은 부가

가치를 발생시키는 농촌융복합산업을 뜻한다. ‘피아골 미션씨’의 제품은 명인의 제품보다 고가에 납품되는 프리미엄 제품이다. **최상의 재료, 맛, 위생 기술력 등을 인정받아 미국, 백화점, 학교급식, 친환경매장, 대형유통마켓 등에 납품하고 있다.**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 젊은 사람이 만든 장류는 맛이 없을 것이라는 편견 때문이었다. 이에 맞서기 위해 김 대표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해외 진출’이었다. 실제로 해외에서 판매되고 입소문이 퍼지며 국내에서 매출이 상승했다. 현재에도 미국 판매량이 전체 매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고로쇠를 넣은 된장의 우수성이 검증되며 ‘고로쇠 수액’을 해외마켓에서 판매중이기도 하다. 고로쇠 수액은 프랑스



산 프리미엄 생수보다 5배 높은 가격으로, 피아골 미션씨의 ‘프리미엄’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가 이렇게 프리미엄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제품에 대한 자신감 덕분이다. **최고의 재료로 제대로 만든 제품은 그에 걸맞은 가격에 판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재료, 환경, 만드는 사람이에요. 저희 제품은 해발 600m의 농가와 축사가 없는 청정지역에서 만들어져요. 학생 때부터 된장을 만들던 저와 발효전문가들의 노하우가 응집된 제품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마트용 장류제품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까다로운 HACCP 인증을 받을 정도로 위생적인 환경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피아골 미션씨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jiripia.kr

에서 만들어져요. ‘확실한 맛’을 보장하는 제품을 직접 맛보고 밍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인 환경을 직접 보고 선택하실 수 있도록, ‘피아골 미션씨’를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해요.”

그는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다. 된장을 만들어 팔던 아이에게 “맛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준 고객들과의 인연을 이어오며 깨끗하고 맛있는 발효식품을 만들고 있고, 어린시절 자라난 고향의 소중함을 알고 이웃과 상생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피아골과 함께 성장하는 청년대표 ‘미션씨’, 그는 이 아름다운 피아골의 내일을 어떤 모습으로 가꿔나갈까?

마음의 여유를 느끼는 힐링여행

전남 화순 1박 2일

남도여행 중에서도 조용하고 아늑함을 느껴보고 싶다면, 그래서 진짜 쉬고 싶다면 전남 화순을 찾아가보는 것은 어떨까. 화순에서 약선요리체험을 하면서 든든하게 몸을 보호하고 온천에서 피로에 지친 몸을 풀어보자. 적벽투어를 통해 눈이 호강하는 즐거움을, 고인돌, 운주사 등 유적지 빼놓을 수 없는 여행지를 포함해 1박 2일 코스를 즐겨보자.

글 박도근 사진 화순군청, 무등산 양떼목장

1
DAY

첫째날, 약선요리와 온천으로 지친 몸에 활력을!

화순여행 첫 시작은, 몸에 좋은 약선 요리체험으로 열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화순의 ‘약선향기’의 약선요리 체험학교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약선향기는 천연재료로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드는 농가로, 몸에 좋은 꾸지뽕과 한약재를 넣은 약선지구뽕오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약선향기에서는 매월 1~2회 요리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메뉴는 계절감에 맞춰 매월 변경되고 만든 요리는 가져갈 수도 있으니 금상첨화! 점심식사도 함께 준비되는 코스이며, 총 4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날씨가 비정기적으로 선정되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으니 방문 전 문의는 필수!

약선체험을 통해 든든하게 배를 채운 후 귀여운 양떼와 함께 자연을 즐겨보는 것을 추천한다. 호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무등산 양떼목장

은 탁 트인 전경에 이국적인 경관을 자랑한다. 10만 평 규모의 드넓은 초지에서 약 200여 마리의 귀여운 양떼들이 뛰어놀며 풀을 뜯는 모습을 지켜보고, 직접 먹이도 주는 체험하는 것도 추천! 1일 코스가 마무리 되었다면 온천수로 지친 몸을 풀어보자.

화순은 온천수가 풍부하게 나오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왕 화순에 왔다면 온천을 즐길 수 있는 호텔이나 리조트를 선택해 보는 건 어떨까. 금호화순리조트에서는 천연온천 워터파크도 즐길 수 있다.

10:30~15:00		15:30~17:00	
약선향기		무등산 양떼목장	
예약문의	010-8601-5065	개인 및 단체문의	061-375-6269
홈페이지	yaksunfood.modoo.at	홈페이지	www.mudeungsan-yangtte.co.kr
주소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상서길 58	주소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안양산로 537
체험학교	10:30~15:00 / 참가비 5만원 / 선착순 10명	운영시간	하계(4월~9월) 10:00~18:00 / 동계(10월~3월) 10:00~17:00
		휴일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영업) ※ 목장 특성상 눈, 태풍 등 기후의 영향으로 영업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입장료	성인 6,000원 청소년 5,000원 어린이 4,000원

18:00		19:30	
근처 맛집추천!		온천+숙박 추천!	
석란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동길 20(교리 126) 061-375-5333 한정식	금호화순리조트	전라남도 화순군 백아면 옥리길 14-21, 061-372-8000, www.kumhoresort.co.kr
저녁노을	전남 화순군 화순읍 안양산로 68(유천리 109-3) 061-375-9797 갈치정식, 약오리, 백숙, 삼계탕	도곡원네스 스파·리조트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온천1길 45, 061-374-7600 www.okspaland.com
		도곡온천프라자행복호텔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온천2길 52, 061-375-7177



2
DAY



둘째날, 고즈넉한 힐링여행으로 마음의 여유를!
이틀째 첫 코스는 화순 제1경으로 일컫는 적벽투어를 권한다. 천하일색이라 일컫는 화순적벽투어는 버스투어로만 볼 수 있다. 적벽투어 전용코스를 이용할 경우 제1전망대 거북섬과 2전망대 모산 노루목적벽, 화순적벽 망향정, 망미정 코스로 운영된다. 2일 전에는 예약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자. 화순에 왔다면 고인돌 유적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화순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유적이 있다. 한국의 고인돌



은 거석문화의 일종으로 2,000~3,000년 전에 축조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선사시대 문화상을 파악할 수 있어 선사시대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한다. 화순군에서는 고인돌 유적에 관한 해설도 진행하고 있으니, 유적에 관심이 있다면 신청해서 들어보자. 유익함이 더해지는 여행이 될 것이다. 화순의 고즈넉한 힐링여행은 불가사의한 신비를 간직한 사찰, 운주사에서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국내 어느 사찰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의 불상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과거 천 개의 불상과 천 개의 석탑, 즉 천불천탑이 존재했다고 한다. 현재는 탑 17기, 불상 80여 기가 남아 있다. 운주사에서는 주말과 평일 모두 템플스테이도 진행하고 있으니,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또는 여유시간을 더해 하루 더 머무르며 여행을 마무리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9:30

화순적벽투어(여행전 버스예약)

적벽투어	3월 23일 11월 24일까지 매주 수, 토, 일요일 오전 9시 30분 / 2시 10분 1일 2회 운영
소요시간	3시간
운영요금	10,000원 / 1인
예약하기	tour.hwusun.go.kr / 투어일 2주 전 09:00부터~투어일 2일 전 16:00까지
개인 및 단체문의	화순군청 관광진흥과 061-379-3501~7
주소	전남 화순군 이서면 적벽로 630-1



12:30

근처 맛집추천!

사평다슬기수제비	전남 화순읍 서양로 79 061-372-6004 다슬기 수제비, 다슬기 비빔밥
남도의 향기	전남 화순군 도곡면 지강로 212 (천암리 308 - 3) 061-373-8989 달장떡국



13:30

화순 고인돌군 유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화순고인돌유적	061-379-3907(대신리 발굴지), 061-379-3933(효산리 관광안내소), 061-370-8831(동북아지석묘연구소, 체험 학습 안내)
홈페이지	www.dolmen.or.kr
주소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고인돌 유적지 관람시간	연중개방
고인돌 선사체험장	화~일 10:00~17:00(월요일, 신정, 명절기간 휴관)
고인돌 유적 해설문의	화순군 관광진흥과 061-379-3503 / 화순군 문화예술과 061-379-3178



15:30

운주사

운주사 총무소	061-374-0660
홈페이지	www.unjusa.kr
주소	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 천태로 91-44
템플스테이 문의	010-5850-0661



SECTION

03



농업&전남농기원

농업은 우리의 생명의 산업이자, 삶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삶의 터전인 전남에서 더욱 밝게 빛을 내도록 앞선 생각,
더 나은 기술로 농부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여유로워지도록
전남농업기술원이 함께합니다.

- 46 귀농 정보
전남 시군별 귀농창업지원 정책
- 48 농기술 정보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요령
- 50 교육프로그램
3월 교육프로그램 안내
- 52 JARES NEWS
- 58 남도축제

2020 전남농업, 미래가 있는 귀농창업을 지원하다

전남 시군별 창업정책

지역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사업량	문의
강진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귀농인(전입일 5년 미만)	귀농인의 농업 창업 및 가공 사업 등 영농 규모 확대 지원	27개소 (10,000천 원)	강진군농업기술센터 061-430-3645
고흥	(2030) 귀향청년 U-turn 정착장려금 지원	만 19세~49세(전입일 5년 미경과)	귀향 청년에게 창업비용, 사업비용 지원	20세대 (10백만 원 지원)	고흥군 귀농어귀촌지원센터 061-830-5428
곡성	(2030) 청년 창업농장 조성	만 18세~40세(경력 3년 이내)	시설 설치비용, 시설물 개보수 비용, 임차비용	1명 (1개소 25,000천 원)	곡성군 농정과 미래농업팀 061-360-7177
	귀농인 신규농업인력 육성지원	귀농인(전입일 3년 미만), 60세 이하	농기계, 하우스, 묘목대 등 농업기반시설 지원(보조 50%, 자담 50%)	20개소 (최대 600만 원 보조)	곡성군 농정과 미래농업팀 061-360-7178
광양	(2030) 청년창업농장 조성사업	40세 미만, 경영 3년 이하	신규시설 설치비, 활용 가능한 시설 개보수 비용, 시설 1년 임차비 지원	17개소 (최대 25백만 원)	광양시 농업지원과 농정팀 061-797-2883
	(2030)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경력 3년 이하, 18세~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교육이수·영농교육작업일지 작성에 해당)	월 최대 백만 원	광양시 농업지원과 농정팀 061-797-2883
	귀농인 소규모 창업농 지원사업	만 65세 이하 세대주, 5년 이내 전입자 등	교육컨설팅, 홍보마케팅, 소모성 농자재 등	세대당 5백만 원 범위 내 지원	광양시 농업지원과 농정팀 061-797-2883
	귀농인 소규모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	만 65세 이하 세대주, 5년 이내 전입자 등	하우스설치, 소형농기계 지원, 관정 설치 등	세대당 5백만 원 범위 내 지원	광양시 농업지원과 농정팀 061-797-2883
구례	(2030) 청년창업농 (청년창업형 후계농) 지원	경영 3년 이하 만 18세 이상~40세 미만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지원금 지급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	구례군 친환경농정과 농정기획 061-780-2403
나주	(2030) 청년농부들의 야한농담	39세 미만 나주시 영농 청년	청년농부 경영 컨설팅 및 소형농기계 자격취득	10명	나주시 농촌진흥과 인력육성 061-339-7813
무안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지방농촌진흥기관 영농교육 참가한 귀농자	귀농창업 아이디어 창업아이템 등 자금 지원	1개소	무안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061-450-4054
보성	귀농귀촌 영농정착 기술교육	귀농·귀촌인(5년 미만)/귀농·귀촌 희망자	농업기술교육, 농업경영·마케팅·기술창업교육	30명 내외 (성별, 연령제한 없음)	보성군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 061-850-5712
순천	(2030) 우수 청년농소득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	우수 귀농농가 및 만 40세 미만 청년농가	농장 조성비 및 임차료 지원 등 초기투자비용 지원	10개소 (귀농인, 청년농 등)	순천시 농업정책과 귀농귀촌담당 061-749-8695
	(2030)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순천시 거주자, 영농경력이 없거나 영농경력(3년 미만) 등	생산, 가공, 유통 등 창업소재 공모로 고소득 성공농가 선도모델 육성	1개소 (최대 25백만 원)	순천시 농업정책과 귀농귀촌담당 061-749-8694
	(2030)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영농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농업관련 교육 이수자(제한 18세 이상~ 50세 미만)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	3억 원(대출한도)	순천시 농촌진흥과 귀농귀촌담당 061-240-4126
신안	(2030)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	만 18세~39세 청년 예비농	승계한 부모세대의 영농기반시설을 ICT 등 첨단 시설로 개선 등 6차 산업화 기반 조성	1개소 (개소 당 30,000천 원)	신안군 농촌진흥과 귀농귀촌 061-240-4126
	(2030) 청년 4-H회원 맞춤형 과제 지원사업	영농4-H회원	생산·가공 등의 기반 구축 지원, 체험·교육농장 등의 농촌 융복합 사업 지원	하우스 시설, 과원 조성비 등 (15,000천 원)	신안군 농촌진흥과 인력육성 061-240-4122
	(2030) 청년농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청년 농업인 및 영농 4-H회원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요령, 농식품 가공·회계·스마트팜 교육 등	20,000천 원 (※지원조건 미정)	신안군 농촌진흥과 인력육성 061-240-4122
	(2030)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만 18세~40세 미만의 청년예비농, 신규 창업예정농	활용 가능한 농업시설물(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 개보수 비용, 시설 1년 임차비	4개소 (개소 당 25,000천 원)	신안군 농촌진흥과 귀농귀촌 061-240-4126
여수	귀농귀촌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여수시귀농·귀촌협회, 귀농귀촌교육 기본교육 수료생	귀농·귀촌인 동아리 모임 추진 창업마케팅 전략 등 귀농·귀촌교육·귀농·귀촌 유치 홍보행사 등	4종, 9회	여수시 농촌진흥과 귀농귀촌팀 061-659-4453
	귀농인 농업 융복합산업 창업	2인 이상, 65세 이하 세대주 (전입일 5년 미만)	농업 융복합산업(6차산업) 창업 지원	2세대(세대당 2,000만 원 ~3,000만 원 이하)	읍·면, 농촌진흥과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규농업인(전입일 5년 이내),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월 10일 또는 80시간 이상 현장실습교육 이수 시 연수비 지원(3개월-, 평균 5개월)	귀농연수생(80만 원 한도) 선도농가(40만 원 한도)	읍·면, 농촌진흥과
	귀농·귀촌 영농정착교육	전입 5년이내 관내·외 귀농귀촌인 및 희망자(기 수강자 제외, 일부우대)	귀농·귀촌 전략, 품목별 농업기술, 성공사례 등	60명 내외	읍·면, 농촌진흥과

지역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사업량	문의
영광	(2030) 청년4-H회원 맞춤형 과제지원 사업	영농4-H회원	영농기반 및 가공품 생산시설 구축	1개소 (1,400만 원)	영광군농업기술센터 061-350-4832
	귀농인 창업농 지원사업	전입 6개월~5년 / 65세 이하 / 세대당 2인 이상 등	농업용 묘목, 저장시설, 농기계구입 등	27개소(개소당 1천만 원)	영광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061-350-5574
영암	귀농 농업창업 지원사업(용자)	만 65세 이하(전입 5년 미만), 연소득 3,700만원 이하 영농 교육 이수자 (100시간 이상) 등	농업창업(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등) 지원	자금 3억 이내	영암군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061-470-6611
	청년 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만 18세~40세 미만(경력 3년이하)	창업비, 농지은행 매입비촉 농지임대 및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1년차(월 100만), 2년차(월 90만), 3년차(월 80만)	영암군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팀 061-470-2371
완도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만 18세~50세 미만 중 영농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인 자, 농업관련교육 이수한 자 등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 컨설팅 등 종합적인 지원	3억 원(대출한도)	영암군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팀 061-470-2371
	신규농업인(귀농인) 영농기초기술교육	귀농·귀촌자	귀농·귀촌인 대상 품목중심 기초영농교육	10,000천 원 (국비50%, 군비50%)	완도군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061-550-5971
장성	영농승계 청년농 창업지원	관내 거주 가업승계 농업인 (만 18세~39세)	승계한 부모세대 영농기반 시설을 ICT 등 첨단 시설로 개선 및 6차 산업화 기반 조성	1명	장성군 농촌지원과 061-390-8428
	청년창업농 스타트업 현장코칭	관내 거주 농업인 (만 18세~45세)	경영개선, 상품개발, 마케팅 등 전문가 현장코칭 지원	10개소	장성군 농촌지원과 061-390-8428
	2040세대 청년농업인 육성	관내 거주 농업인 중 창업전문교육 수료자 (만 18세~45세)	영농 창업에 필요한 맞춤형 창업자금	15개소(신축&개보수, 6차 산업기반 조성비 등)	장성군 농촌지원과 061-390-8428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5년 이내 영농교육 참여 귀농인	마케팅, 로고제작, 시제품 제작, 지적 재산권 등 지원	3개소 (10,000천 원/세대)	장성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담당 061-390-8432
	(2030)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청년(예비)농(만 18세~40세 미만)	신규 시설 설치·개보수 및 1년 임차비 지원	27개소 (25,000천 원/세대)	장성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담당 061-390-8432
장흥	귀농인 우수창업농 육성지원	2012년 이후 전입 후 안정적으로 정착한 귀농인	가공·유통·체험 등의 6차 산업 관련 지원	1개소 (40,000천 원/세대)	장성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담당 061-390-8432
	귀농·어업인 창업자금 지원	귀농어업인 자격조건에 충족한 자	경종, 축산, 수산분야 창업자금 지원	18농가 (세대당 20백만 원 한도)	장흥군 농산과 귀농귀촌팀 061-860-0849
진도	(2030) 귀농인 청장년 청년농 지원	전입 5년 미만 귀농인 자격 갖춘 세대주 (만 20세~ 49세 이하)	시설설치(하우스, 온실, 저장·관수 시설설치), 가공시설(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 설치)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 지원	5세대	진도군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담당 061-540-6134, 6135
	귀농인 영농자재지원	전입 5년 미만 귀농인 자격 갖춘 진도군 거주 세대주(만 20세~ 65세 이하)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 소형농기계 (관리기, 예취기) 등 구입비 지원	10세대	진도군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담당 061-540-6135, 6134
함평	귀농인 정착지원	전입일 2년 이상 귀농인 자격 갖춘 세대주 (만 20세~ 65세)	시설설치(하우스, 온실, 저장·관수 시설설치), 가공시설(농식품 가공·제조용 기계 설치)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 지원	10세대	진도군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담당 061-540-6135, 6134
	신규농업인(귀농) 현장실습교육	신규농업인(전입일 5년 미만)	선도농장에서 귀농인 현장실습교육(5개월 실습)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 061-320-2499
화순	귀농귀촌인 영농 기초기술교육	귀농·귀촌인	영농기초기술교육(이수조건: 60시간 이상)		함평군농업기술센터 경영개선담당 061-320-2477
	귀농 창업자금	전입일 5년 미만의 만 65세 이하 세대주,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자 등	농지 구입, 하우스설치, 축사신축·보수 등		함평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 061-320-1742, 1743
화순	(2030) 청년창업 농장조성사업	만 18세~40세 미만 청년(예비농)	하우스, 축사 등 설치비용, 활용 가능한 농업 시설물 개보수 비용 등 지원	25,000원 한도	화순군 농업정책과 061-379-3625
	(2030) 청년 후계 농업인	만 18세~40세 미만 농업인, 영농경력이 없거나 경력미 3년 미만인 자로서 군필 또는 면제자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지원	세대당 최대 3억 원	화순군 농업정책과 061-379-3625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농촌 외 지역에서 전입한 5년 미만 귀농인	귀농 창업 아이디어 및 창업아이템 발굴을 위한 창업 실행비 지원	27개소 (20,000천 원)	화순군농업기술센터 061-379-5441
	새내기 영농체험 농장교육	전입 5년 미만 귀농인, 40세 이하 청장년층, 예비귀농·귀촌인 등	영농기초교육 및 현장실습(딸기·흑염소 농장)	2명 / 강사수당 및 자문수당 지급	화순군농업기술센터 061-379-5441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요령 - 농작물 및 시설물 -

겨울철을 맞이하여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농작물 및 시설물에 동해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이를 줄이기 위해선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겨울철에 해야 할 농가의 실천 사항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자료 농촌진흥청



겨울철 한파·폭설 대비 실천해야 할 작업

겨울철 한파가 닥치면 멀쩡하던 시설물에도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설하우스가 노후화되었는지 사전점검을 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쌓인 눈 때문에 하우스가 붕괴할 위험이 큰 만큼, 하우스밴드(끈)를 팽팽하게 당겨두고 내부에 보강 받침대를 설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인삼밭의 경우는 인삼 차광막 및 과원 방조망을 미리 걷어두고 배수로를 정비해 두어야 적설로 인해 붕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폭설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는 동해로 인한 피해도 무시하지 못한다. 특히 한파가 시작되면 과수 나무가 저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과수 주간부에 흰색 수성페인트를 바르거나 볏짚 등의 소재로 된 보온재 피복으로 덮어 단열하는 것이 좋다.

특보에 따른 농작물 대비 방안

하우스는 폭설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한파 주의보가 발령했을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대비책으로는 환기창을 모두 닫고 보강지주를 2~6m 간격으로 설치하고, 난방기를 가동하거나 측창 및 출입문을 닫고, 화재에 유의하며 볏짚이나 왕겨 등을 연소시켜 내부 온도를 상승시켜야 한다. 동시에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은 수시로 너가래 등으로 쓸어내려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눈이 많이 쌓여 지붕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임시방편으로 지붕 비닐을 찢기를 실시하여 골재 붕괴나 휘어짐을 방지한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응급조치

철저한 대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신속한 조치다. 만일 시설 등이 파손됐거나 농작물이 저온피해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는 생육부진포장 엽면시비 및 보온재(섬피 등)를 이용해 신속히 소형 터널을 설치하여 보온한다. 또 정전이나 온풍기 고장 시에는 응급조치로 양초나 알코올 등을 사용하여 입은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때 화재 위험이나 산소 부족으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겨울철 가축 관리 요령

겨울철이 오면 하우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가축들이 있는 축사이다. 겨울철에는 축사 내 적정온도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바람막이 설치 및 단열시설을 정비하고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해 전선 피복 상태 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기 가축들은 추위로 인해 에너지 소모량이 크게 상승하므로 사료량을 10~20% 정도 늘려 급여하는 것이 좋다. 겨울철은 가축들의 면역력이 크게 저하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축사 내·외부 청결을 유지하여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AI(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을 예방한다. 특히, AI의 경우 야생조류의 침입으로 전염되는 질환인 만큼 야생조류 차단 그물망을 설치하여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고 전염병 의심증상 발견 시에는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에 즉시 신고를 한다.

Tip Box

농작물재해보험

농림축산식품부 044-201-1728 / NH농협손해보험 1644-8900

풍수해보험(주택, 온실)

행정안전부 044-205-5366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읍·면·동 주민센터

02)2100-5103(DB손해보험) 5104(현대해상) 5105(삼성화재)

5106(KB손해보험) 5107(NH농협손해보험)

*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www.rda.go.kr),

시·군농업기술센터로 연락주세요.

전남농업기술원

농업인 교육일정

3

월

교육일정

MARCH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4	5	6	7
		모바일 홈페이지 및 스마트스토어 제작				
				제1기 농업기계 전문반(트랙터 등)		
8	9	10	11	12	13	14
		제1기 농업기계 안전교육	발효식품(장류·식초)			
15	16	17	18	19	20	21
	제1기 농업기계 영농사 인력양성					
22	23	24	25	26	27	28
제1기 농업기계 영농사 인력양성						
	농식품 가공(절임류·소스)					
	귀농창업 교육					
29	30	31	1	2	3	4
		창업형 귀농				
5	6	7	8	9	10	
						

1. 모바일 홈페이지 및 스마트스토어 제작

교육대상	도내 주소를 둔 희망농업인
교육기간	3. 3. ~ 3. 5.(21시간)
교육장소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농업교육관
교육신청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박성국(061-330-2736)

2. 제 1기 농업기계 전문반(트랙터 등)

교육대상	도내 희망 농업인 등
교육기간	3. 5. ~ 3. 6.(13시간)
교육장소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농업기계 교육관
교육신청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이기용(061-330-2732)
교육내용	· 친환경 유기농업 방향 · 트랙터, 발농업기계, 시물레이터 및 점검정비 및 운전조작 현장 교육 등

3. 제1기 농업기계 안전교육반

교육대상	도내 희망 농업인 등
교육기간	3. 10. ~ 3. 10.(7시간)
교육장소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농업기계 교육관
교육신청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이기용(061-330-2732)
교육내용	영농현장 농작업기 운영 중 안전사고 예방 현장교육 등

4. 발효식품(장류·식초)

교육대상	도내 농업인
교육기간	3. 11. ~ 3. 13.(21시간)
교육장소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교육신청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김열(061-330-2745)

5. 제1기 농업기계 영농사 인력양성반

교육대상	도내 기계화영농 종사자 및 희망 농업인 등
교육기간	3. 16. ~ 3. 27.(70시간)
교육장소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농업기계 교육관
교육신청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이기용(061-330-2732)
교육내용	· 영농현장 농작업기 운영 중 안전사고 예방 현장교육 등 · 영농현장 농·작업기계 조작에 따른 안전한 농업기계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 현장교육을 통한 농업인력 보호 및 안전사고 최소화 제고

6. 귀농창업 교육

교육대상	도내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대상자
교육기간	3. 23. ~ 3. 27.(35시간)
교육장소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교육신청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조보람(061-330-2724)

7. 농식품 가공(절임류·소스)

교육대상	도내 농업인
교육기간	3. 23. ~ 3. 27.(21시간)
교육장소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교육신청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조보람(061-330-2724)

8. 창업형 귀농

교육대상	도내 5년 이하의 귀농·귀촌자
교육기간	3. 31. ~ 4. 02.(21시간)
교육장소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농업교육관
교육신청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박성국(061-330-2736)

JARES NEWS



제18대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 취임

전남농업기술원은 2일 직원 및 농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대 박홍재 신임 원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박홍재 신임 원장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1996년 경기도 이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식량산업기술팀(과)장 등 농업현장과 농촌진흥청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농업 전문가로 손꼽힌다. 신임 원장은 활발한 소통능력으로 중앙부처와의 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여 상황판단이 빠르고 현안대처가 매끄럽다는 평을 들으며, 농도로 대표되는 전남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문의 농촌지원과 정석근 주무관(061-330-2752)



전남농기원, 2019년 우수 경영기록 경진대회 성황

전남농업기술원은 2019년 12월 17일 경영기록장 기록농가 확산과 어깨동무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2019년 우수 경영기록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진대회는 농가들의 경영기록 확산을 위해 농산물 소득조사와 어깨동무컨설팅에 참여하고 있는 우수 농가를 선발·시상하여 자부심을 높이고, 그동안 경영기록장 기장과 농산물 소득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는 앞으로 농산물 소득조사와 어깨동무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금번 경진대회에 참여한 농가는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45호가 1차 선발을 거쳐 농업기술원에 접수되었으며, 그 중 농산물소득조사 기장농가 22호, 자유기장농가 23호였다. 이날 경진대회에서 소득조사농가 기장부분에서는 고흥 강경원, 정희영 대표가 꾸준한 기록으로 성실성과 충실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자유기장 부분에서는 함평 이주영 대표가 경영기록과 엑셀을 활용한 경영분석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문의 자원경영과 마은미 연구사(061-330-2582)



전남농기원, 유자제품 수출확대 국제 세미나 개최

전남농업기술원은 유자수출사업단과 고흥군 공동으로 유자재배 농업인, 연구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자제품 수출활성화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중국 유통전문가의 농식품 유통현황 및 현지 마케팅 트렌드와 사례를 발표를 통해 중국에서 잘 팔리는 상품을 알아보고, 고품질 유자 생산을 위한 겨울철 재배기술 및 유자수출사업단의 연구내용을 공유하여 수출확대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이뤄졌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현재 유자는 유자차 형태로 중국과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37,004천 달러, 2018년 41,244천 달러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자원경영과 조용관 연구사(061-330-2593)



전남농기원,
수출농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농업경영체 수상 쾌거

전남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에서 개최한 2019 수출농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도내 2개 농업경영체가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경진대회는 농촌진흥청이 수출농업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전라남도에서 신선농산물분야에 출전한 해남 땅끝항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이 최우수상, 강진 농업회사법인 (주) 탐진들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땅끝항토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09년 설립되어 2017년 수출쌀 작목반을 구성하고, 친환경 하양가바쌀을 개발해서 해남군과 전남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아 지속적으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문의 자원경영과 조용관 연구사(061-330-2593)



전남농기원,
농업경영정보화사업 성과보고회 성황

전남농업기술원은 보성다비치콘도에서 시군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자와 시범 농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농업경영정보화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한 생산비절감과 농업정보화사업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농산물 생산비절감 분야에서는 어깨동무컨설팅 및 생산비절감 경영모델 개발사업, 농업정보화 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술활용 농가소득 증대 우수사례 공유와 가공 농가들의 판매증대 마케팅 추진성과 발표회를 가졌다. 아울러 탐경영컨설팅 고재영 세무사의 ‘농업인이 알아야 할 세무상식’과 농협경제지주유통사업단 김우정 과장의 ‘전남 농식품의 수출확대 방안’에 관한 특강이 이루어졌다.

문의 자원경영과 조용관 연구사(061-330-2593)



전남농촌교육농장협의회 이승희 회장,
현장실습교육장 현장교수 임명

전남농업기술원은 농촌체험학습 네트워크를 통한 농촌어메니티자원 가치창출과 교육농장 품질향상을 위해 육성하는 전라남도농촌교육농장협의회 이승희 회장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현장실습교육장지정 및 WPL 현장교수에 임명됐다. 현장실습교육(WPL, Work Place Learning)은 선도농업인이 보유한 전문기술과 핵심 노하우를 후발농업인에게 전수하는 실습형 교육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전국의 현장실습교육장에서 진행되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전문가를 통해 현장교수의 품목 전문성, 교육기획 및 강의역량, 교육환경의 우수성 등을 단계별로 심층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현장실습교육장은 현재까지 115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2019년 전국 7개소가 신규 선정되었다. 지정교육장은 당해년도에 현장교수 역량강화 필수교육을 수료, 다음연도부터 실습교육을 운영할 수 있고 강의·교재·식사·숙박 등 교육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받게 된다.

문의 자원경영과 정현희 주무관(061-330-2562)



전남농기원,
젊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기능성 블렌딩 차 제품 개발

전남농업기술원은 전남산 유기농 녹차와 지역 농특산물 천연식물을 활용하여, 요즘 젊은 소비층이 선호하는 향산화성, 기억력개선, 면역력 증진 기능성에 기호도가 향상된 블렌딩 녹차 3종을 개발하였다. 차산업연구소에서는 그동안 차 소비 활성화를 위해 녹차의 기능성을 이용한 다양한 신제품을 개발해 왔는데,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동안이도다차, 총명하도다차, 튼튼하도다차’ 3종은 천연식물 자원을 혼합하여 맛과 향을 살리고, 간편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티백, 티업 및 캡슐 포장기술을 다양하게 접목한 제품들이다.

문의 차산업연구소 오봉윤 연구사(061-853-5155)



전남농기원,
버려지는 유자박 식품소재화 기술 개발

전남농업기술원은 유자즙 가공 시 발생하는 부산물인 유자박을 식품 소재화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유자박은 연간 2,500톤 가량 생산되는데 활용처가 많지 않아 사료 등으로 사용되거나 버려지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유자박을 동결건조 방법으로 분말을 제조했을 때 색이 좋고 지방분해 촉진 성분인 나린진(Naringin),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피토케미컬 헤스페리딘(Hesperin)이 다른 건조방법에 비해 8.85mg/g, 53.59mg/g으로 함유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타민C 분석 결과 동결건조 분말이 99.8mg/100g 함유된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유자 가공업체에서 유자박 동결건조 분말을 식품소재로 이용한다면 기능성 성분과 항산화 성분이 뛰어난 가공제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의 과수연구소 이보배 연구사(061-533-9816)



전남농기원 축산연구소,
젖소 산업화 기반 조성 박차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는 희소한우인 젖소 산업화를 위해 송아지 생산용 동결정액을 공급하고, 전수조사와 현장 기술지원으로 사육 기반조성에 매진하고 있다. 젖소는 일제 강점기 한우 수탈과 황갈색(누렁소) 품종 위주 사육정책에 따라 개체수가 급감하였으나 최근 축산 연구기관 및 농가의 증식과 복원 노력으로 개체 수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전남 도내 사육 규모는 13농가에서 350두(전국 322농가, 3,906두)에 불과하며 대부분 소규모로 사육하고 있어 산업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육두수를 늘려야 한다. 이에 축산연구소는 지난 2014년부터 젖소 사육 농가의 송아지 생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동결정액 생산기술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농가에 정액을 공급해 오고 있다.

문의 축산연구소 유대중 연구사(061-430-4231)



전남농기원,
알기 쉬운 매실 농약 안전사용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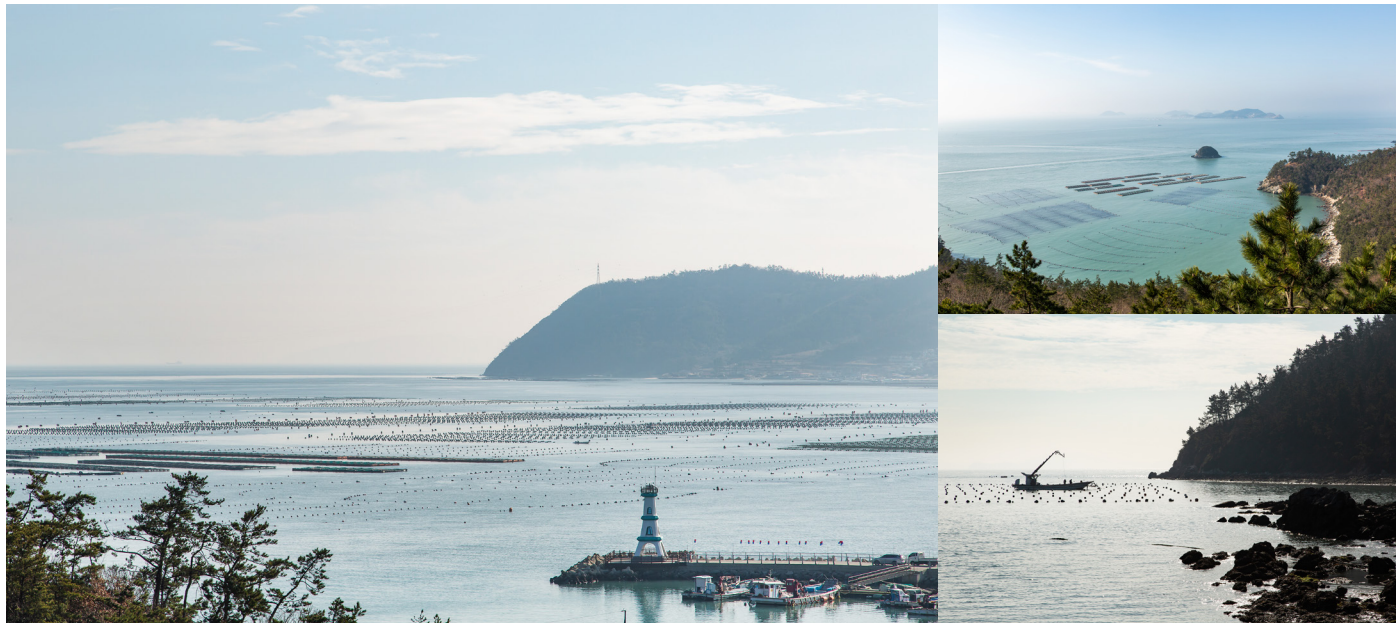
전남농업기술원은 지역 특산물인 매실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의 특징과 등록 약제를 작용기작별로 분류한 농약 안전사용서를 발간했다. 전남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최근 매실에 발생하고 있는 병해충의 발생 양상을 보면 검은별무늬병, 고약병, 복숭아씨살이좀벌, 갈색날개매미충, 진딧물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복숭아씨살이좀벌은 방치할 경우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제작한 책자에는 검은별무늬병, 복숭아씨살이좀벌 등 7종의 주요 병해충에 대한 피해증상, 발생특성, 방제방법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였다.

문의 친환경농업연구소 김효정 연구사(061-330-2508)

‘2020 해남방문의 해’ 4色 매력

‘땅끝’으로 유명한 해남군은 2020년을 ‘2020 해남방문의 해’로 선포하여 사계절 내내 다양한 축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매화부터 해맞이까지 계절에 따라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축제들을 만나볼 수 있다. 먹고, 보고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 해남에 방문하여 4가지 매력을 만끽해보자.

문의 해남군(061-530-5462)



‘땅끝’에서 만나는 4色 축제

천혜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농수산물이 가득한 해남군은 여유의 시간을 가져보기 좋은 도시다. 대표 관광지로 땅끝, 대흥사, 우수영, 우항리가 있다. 여기에 해남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다양한 축제 개최를 앞두고 있다. 그밖에도 템플스테이, 아트투어, 고고다이노 공룡 탐험 등 여러 연령층이 좋아할 체험상품 등이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다. 해남군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색있는 축제들을 개최함으로써 이곳을 차별화된 관광지로 만들 계획이다. 2020년에는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전라남도의 다채로움 ‘끝판왕’을 만나러 ‘땅끝’으로 나서보길 권한다.

Spring 美南

가장 먼저 시작되는 한반도의 봄 땅끝 매화축제

Summer 迷南

다이나믹한 해남의 여름 송호해변축제
오시아노 락 페스티벌

Fall 味南

울돌목의 전승 명랑대첩축제
맛있는 가을 해남미남축제

Winter 尾南

인생순례길 달마고도 힐링축제
땅끝에서 만나는 새해 땅끝 해님이 해맞이 축제

